

# 『大家意選批評』 연구

김덕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 한국한문학 전공

kds2691@hanmail.net

I. 머리말

II. 당송고문의 추구와 『대가의선비평』의 저술

III. 『대가의선비평』을 통해 본 택당의 문장관

IV. 맷음말

## I. 머리말

澤堂 李植(1584-1647)은 仁祖朝에 세 차례나 문형을 역임하며 당대 문운을 주관했던 문장가이자 비평가였다. 택당은 『唐宋八大家文鈔』를 저본으로 산문 선집을 엮고, 여기에 자신의 문학적 견해를 투영하였다. 이것이 바로 『澤堂先生遺稿刊餘』 10책에 수록되어 있는 『大家意選批評』이다. 택당이 20년에 육박하는 공력을 기울여 완성한 『纂註杜詩澤風堂批解』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현전하는 두시 비평서 가운데 유일한 개인의 저작이다. 미찬가지로 『대가의선비평』도 현전하는 산문 비평집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저술로 여겨진다. 더욱이 당대 문단의 우이를 점하던 문장가에 의해 찬술되었고, 비평 대상도 전후칠자의 의고적 창작론에 반발하여 제작된 『당송팔대가문초』에 실린 산문이므로 주목을 요하는 자료다.

본고에서는 『대가의선비평』의 저술 배경과 경위, 구성 등을 살핀 뒤, 당송고문에 대한 택당의 문학적 견해를 도출하되, 택당이 생각했던 古文의 요건과 창작상의 특징을 구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sup>1)</sup> 특히 기존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필사본 『택당선생집』과 『택당선생 유고간여』를 적극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기존에 이루어진 택당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674년(현종 15) 간행된 목판본 『택당집』을 주요 텍스트로 삼았다는 점이다. 『택당집』은 노론 인사의 주도하에 간행된 바, 색목의 편향성에 일정 부분 노출되었고, 문학 관련 자료들도 상당수 누락되었으며, 택당 자신의 문학실천과 괴리되는 입론도 적잖이 보인다.<sup>2)</sup> 이에 『택당집』의 저본이 된 필사본 『택당선생집』과

---

- 1) 『대가의선비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윤지훈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택당 비평의 특징을 '主意'의 중시, '簡要한 문체의 추구', '선대 제가의 비평 수용'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택당의 奏議體 산문 두 편을 분석함으로써 택당 산문의 인공미와 조직미를 설명하였다. 윤지훈, 「택당 이식의 『대가의선비평』과 산문창작의 실제」, 『한문학논집』 29(근 역한문학회, 2009). 이는 疏箇論事類가 택당 산문의 장처라는 후대의 평가와 왕안식의 「上仁宗皇帝書」에 가한 택당의 비평이 자못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 2) 동일한 인물일지라도 그가 처한 입장과 지위에 따라 처세의 방식이 바뀌기 마련이다. 택당은 평생에 걸쳐 詩作에 힘썼고, 특히 중년 이전까지는 杜詩와 江西詩 학습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승문원과 성균관, 홍문관 등을 주관하는 중책에 올랐을 때는 자신의 실제 경험과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당위적인 문학론을 상당수 남기고 있다. 택당은 1637년(인조 15) 자신의 시문을 공줄에 따라 원집과 속집으로 구분하여 편하였다. 문집을 자편하는 과정에서 당위적 문학론에 부합하지 않는 글들이 상당수 누락

『택당집』에 수록되지 못한 시문을 따로 수습하여 엮은 『택당선생유고간여』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택당 문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 II. 당송고문의 추구와 『대가의선비평』의 저술

### 1. 당송고문의 추구와 전범의 확장

택당은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646년(인조 24) 겨울, 자손의 학문적 계도를 위하여 「學詩準的」과 「作文模範」을 지어 학문과 문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였다.<sup>3)</sup>

古今의 풍속과 事情은 현격히 다르나 문장과 詞令은 그 사이에 통용된다. 비록 古人이 現세에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今文을 자을 것이다. 이는 詩學과는 다른 것이니, 마땅히 唐宋 이후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古今風俗事情懸殊, 而文章詞令通於其間. 雖使古人生於今世, 必爲今之文. 此與詩學不同, 當以唐宋以下爲法).<sup>4)</sup>

시를 배울 때는 '溫柔敦厚'가 발현된 『詩經』과 古詩를 學詩의 본령으로 상정해야 한다. 반면, 문장의 경우는 소통성과 시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當代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唐宋 이하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송고문 추구의 중요한 이유이다.<sup>5)</sup> 이어서 당송고문의 연원이자 의리의 근원인 經傳을 종신토록 숙독할 것을 제언한 뒤<sup>6)</sup>, 茅坤이 초록한 『唐宋八大家文抄』를 언급하며 개별 작가의 문학적 성취와 구체적인 학습방법에

---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시열이 문집 간행을 주도한 사실과 李端夏를 위시한 택당의 자손들이 노론의 중심에 편입된 점은 택당에 대한 정주학 일변도의 편향적 평가를 낳게 하였다. 이에 택당 문학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김덕수, 「택당의 한시론과 『택풍당비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40-57쪽.

3) 『宋子大全』 권203 謚狀 「澤堂李公謚狀」. “十二月, 上岫雲菴, 與門生講啓蒙, 賦詩還家, 得寒疾, 宿病添重, 沈綿終歲. 為兒輩草作詩準的·作文模範以授之.”

4) 『澤堂別集』 권14 雜著 「作文模範」.

5)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宋人文字大抵不畔於理, 不止程朱以後也. 其言德行, 則本於六經, 言理氣, 或參以釋典. 其以文章名者, 所論往往詣極, 去程朱只一間者, 會南豐·歐陽氏, 王氏其次也. 惟三蘇之學, 本於莊子·戰國策, 縱橫倒豎, 全昧義理, 讀其文者當察之.” 이 글은 1631년과 1632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6) 「作文模範」. “詩書正文·孟子正文·論語·庸學并傳註爲先熟讀, 終身溫習. 此義理本源, 不可一日塞也.”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韓愈의 글은 문장의正宗이니 먼저 읽지 않을 수 없다. 7, 80편을 뽑아 읽고, 그 의취를 터득했다면 평생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미숙한 후학 중에는 필력을 얻은 자가 적은 바, 오로지 귀착점으로 삼을 수 없다. 이는 詩에 있어서 杜詩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茅鹿門(茅坤)이 초록한 팔대가의 문장이 가장 中正하다. 柳宗元은 한유와 백중지간이고, 歐陽脩·王安石·曾鞏은 전적으로 한유에서 나왔다. 三蘇는 비록 『莊子』와 『國語』를 배웠으나, 또한 한유의 범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大蘇(蘇軾)는 비록 궤단하지만, 文氣는 한유에게 뒤지지 않는다. 뜻을 위주로 하고 붓끝에 입이 있으니, 이것을 귀착점으로 삼아라. 7, 80편을 뽑아 읽되 평상시에 반복해 익힌다면, 굳이 나독하지 않아도 필력을 얻을 수 있다. 유종원 이하 여섯 대가의 글은 특히 절묘한 것만을 4, 50편 가려 뽑아, 여력이 있을 때 일독하고 이따금 반복해서 열독한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 가려 뽑은 작품의 수를 늘리거나 줄여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문장을 점유하는 正脉이요, 한유가 밀한 仁義의 언어다. (韓文, 文之宗, 不可不先讀, 七八十首抄讀, 若得臭味, 仍以爲終身模範可也. 然末學之得力者少, 不可專爲歸宿, 如詩之杜詩也. 茅鹿門所抄八大家文, 最爲中正. 柳之於韓, 如伯仲, 歐·王·曾專出於韓, 三蘇雖學莊·國, 亦不出韓之模範. 大蘇雖謫, 文氣不下於韓. 以意爲主, 筆端有口, 以此爲歸宿地, 抄讀七八十首, 尋常熟覆, 不必多讀而得力也. 柳以下六家之文, 抄其尤絕妙者四五十篇, 餘力一讀, 時復閱覽. 從其所好, 增減其所抄可也. 此是古文章正脉, 韓子所謂, 仁義之言也).

우선 문장의正宗인 한유의 글을 7, 80편 가려 뽑아 읽도록 권유하였다. 다만 두시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학식이 풍부하고 재주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 정수를 체득하기 어려우므로<sup>7)</sup> 한유의 문장만을 귀착점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당송팔대가문초』에 선발된 문장이 가장 中正하다고 전제한 뒤, 한유를 중심으로 팔대가의 개별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택당의 평에 의하면 유종원은 한유와 백중지간이고, 구양수와 왕안석·증공도 그 연원은 한유이며, 三蘇 역시 한유의 범주에 수렴된다. 특히 蘇軾의 경우, 그 학문적 연원은 궤단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문장의 기세가 한유만큼이나 탁월하고 붓끝에 입이 있으므로<sup>8)</sup> 문장 학습의

7) 「學詩準的」에서 두보의 變體古詩와 歌行은 필력이 웅건하고 학식과 재주가 뛰어난 자가 아니면 배울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율시의 경우, 마땅히 두시를 전범으로 삼아야 하나, 橫逸하고 賤晦한 작품은 일단 학습을 유보하라고 말하였다.

8) 붓끝에 입이 있다는 표현은 인정과 경물을 곡진하게 표현했다는 의미다. 택당이 정통했던 『瀛奎律髓』에서 方回는 劉禹錫의 「赴蘇州醉別樂天」(권4)을 “善用事, 筆端有口, 未易可及”이라 평하였고, 陸游의 「舍北搖落景物殊佳偶作五首」(권13)를 “放翁所謂筆端有口, 新冬野景, 搜抉無遺.”라 평하였다. 『영규율수』와 택당 시학의 상관관계는 『澤堂先生集』 권15 跋, 「金參議瀛奎律髓抄跋」 참고.

귀착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초록하여 숙독할 작품의 숫자도 작가의 비중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한유와 소식은 각각 7, 80편이고, 유종원 이하는 4, 50편씩이다. 적어도 만년의 택당은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유와 소식을 가장 추중하였다.

한편 택당이 당송팔대가를 중시한 점은 당시 조선을 풍미했던 의고적 문풍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명대의 당송파가 전후칠자를 비판했던 사실과 그 궤를 함께 한다. 실제로 택당은 전후칠자의 의고적 문풍과 명대 의고주의를 맹종하는 당대의 관성적 풍조를 통렬히 비판한 바 있다.<sup>9)</sup> 당시 의고적 풍조에 휩쓸린 일군의 무리는 경전뿐만 아니라, 두보·한유·소식·황정견 등을 도와시한 채, 진한고문과 唐詩의 일부만을 엿보며 고문과 성당시를 표방하였다. 이들은 이반룡이 말했던 “고문을 본받아 문사를 닦았으니, 어찌 이치를 잊겠는가!(視古修辭, 寧失諸理)”<sup>10)</sup>를 외치며 자신들의 편협한 문장학습에 정당성을 부여했다.<sup>11)</sup>

그러나 택당이 의고적 문풍을 개탄한 것은 진한고문의 학습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한고문 자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sup>12)</sup>

9) 택당의 견해에 의하면, 명대 전후칠자와 當代에 진한고문을 표방한 무리의 가장 큰 맹점은 편협한 독서였는데, 특히 전후칠자는 서너 종류의 서적만을 전공하며 세속과 다른 문장을 짓는 것만을 고상하게 여긴 바, 사령을 제작하는 데 보탬이 되지 못하거나 와 배우기도 어려웠다.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今之尙漢唐之云, 於漢唐未窺十分之三四, 而不知人世有六經·語·孟·杜·韓·蘇·黃之文, 可笑可慨可慨.”; 『澤堂別集』 권14 「雜著 作文模範」, “大明之文有二道, 方遜志·王陽明最爲中正, 乃韓·歐之類也。崆峒以下四大家·十大家, 則專學左·國·班·馬, 務以不諧世俗爲高, 施之於今, 一無當於詞令。學之又極難, 決不可入其門也。吾文法既定之後, 時一取覽, 不無一二可善也。” 택당은 李鳴의 「登歷下古城員外孫新亭」(『찬주두시택풍당비해』 권1)을 평하며, 뺏고 얹고 역색하며(倔強) 엉성하고 거칠다(疎齒)는 것으로 명나라 시풍을 설명한 뒤, 명대 시풍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당대 소단의 풍토에 불만의 뜻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李北海(필자주: 李鳴)는 학문이 심오하고 문장이 기이했으나 시는 뛰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뺏고 얹고 역색하며 엉성하고 거친 것이 이와 같다. 당나라 때 李習之(필자주: 李翹)와 樊宗師의 시 또한 이와 유사하다. 지금 皇明 學士의 詩律도 대부분 이와 같은데, 사람들은 오묘한 수준인지를 심이어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 그러한가! 어찌 그러한가!(李北海邃學奇文, 詩非所長, 故倔強疎齒如此。唐時李習之·樊宗師詩亦類此。今皇明學士詩律多如此, 人以爲高妙而至不可解, 豈其然乎! 豈其然乎!)”

10) 『滄溟集』 권16 序 「送王元美序」, ‘視古修辭, 寧失諸理’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강명관, 「택당 이식 산문비평의 재검토」, 『안쪽과 바깥쪽』(소명출판, 2007), 139-141쪽 참고.

11) 『澤堂集』 권9 序 「願菴集後敍」, “近年以來, 文體遽變, 末學後生稍窺秦漢數十卷文字, 則視經訓如司空城朝書, 其言曰, ‘視古修辭, 寧失諸理.’ 噫! 其文之靡, 而道之喪乎!”;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中朝人自幼讀經書, 及壯, 讀史·漢. 故其文尚有質幹條理. 我國不窺經傳一字, 但讀史記先秦列傳一二卷, 便發號嘆, 宜夫文理晦舛不成一語也.”

「谿谷集序」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당시 여러 鉅公은 『좌전』과 『국어』, 『한서』, 『사기』를 모범으로 삼으며, 진부한 표현을 힘써 제거하고[力去陳言] 고문을 본받아 문사를 닦았다[視古修辭].<sup>13)</sup>

아울러 당송고문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당송고문의 내력과 연원이 진한고문에 있거니와 문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적에 내재된 각각의 필법을 체득해야 한다. 사대부는 일상과 應舉, 仕宦의 과정에서 다양한 글을 찬술한다. 특히 필력으로 입신한 경우에는 國史를 친수하고 각종 외교문서를 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문체별로 전범의 범위를 소급, 확장하였다.<sup>14)</sup> 「작문모범」에 따르면 科文 제작에 필요한 학식을 얻기 위해 四書와 古文選集, 陸贊와 朱子의 奏議類를 배워야 하고, 諸家의 駢儷文을 통해 문장의 수사적 기세[藻麗之氣]를 도와야 하며, 『資治通鑑綱目』을 열독하여 '稽古引史'의 필법을 익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찬술하거나 序·記·碑·誌 등을 짓기 위해서는 『漢書』와 『史記』에 구현된 '記事'의 필치를 배워야 하고, 『장자』와 『노자』, 『문선』에 실린 秦漢魏의 문장 역시 선독하여 문장력을 도와야 한다.

실제 택당은 노장뿐만 아니라 仙佛, 陰陽, 堪輿, 禪學 등의 방면에도 조예가 상당하였다.<sup>15)</sup> 그리고 『대가의선비평』에 수록된 “이 글은 『莊子』를 배운 것으로 養生篇과 흡사하다.”와 “章法이 『한서』와 『사기』의 高祖元勳傳에서 나왔다.”, “사마천과 반고의 장법이다.” 등의 평어는 택당이 『노자』와 『장자』, 『한서』, 『사기』 등에 얼마나 정통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sup>16)</sup>

12) 『澤堂別集』 권5 序 「玄洲遺稿序」. “其學，於古無所不蒐，故其文，於古無所不備，上蹈兩漢，下籍六朝，而不失孔氏辭達之旨。”; 『澤堂集』 권9, 「五峯李相國遺稿後題」. “植又嘗與聞，相公之學，本諸論語，博采禮記·左氏·班史之長。故其文有質有華，雖不囿於格，而意明理暢，自不墮陳言臼壘中。”

13) 『澤堂別集』 권5 序 「谿谷集序」. “近代諸鉅公，力去陳言，視古修辭，追軌乎左·國·班·馬，則變化見矣。” 이 글은 1643년(인조 21) 홍문관대제학을 역임할 때 지은 것이다.

14) 전범을 소급, 확대하려는 포용적 입장은 「學詩準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택당은 古詩와 杜詩를 학시의 전범으로 설정하되, 詩體별로 다양한 작가와 작품의 성취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덕수, 「澤堂 李植의 漢詩論과 『澤風堂批解』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58-80쪽 참고.

15) 『畏齋集』 권9 行狀 「先考府君行狀」. “以至老莊仙佛之旨，陰陽堪輿之說，亦皆通曉。於近代禪學似是而非者，辨別尤嚴。闢之廓如，蓋於書無所不覽，於物無所不格。”

16) 「送高閑上人序」, “題下曰，此文學莊子，酷似養生篇，古人已評之矣。”; 「平淮西碑」, “顏胤武合攻’云云，章法出漢史高祖元勳傳，亦簡要有體。”; 「柳子厚墓誌」, “點‘乃見’至‘是也’

훗날 藥泉 南九萬(1629-1711)은 택당의 문학을 회고하며 “문장은 사마 천과 반고의 문호를 엿보고, 시는 이백과 두보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랐지. (文辭窺覩馬班門, 詩律沿洄李杜源)”라 평했고,<sup>17)</sup> 金陵 南公轍(1760-1840)은 택당의 5대손 李翊模(1717-1812)의 詩錄에 발문을 적으며 이익모의 학문 연원이 두보를 시법으로 삼고 『漢書』를 흐흐했던 택당의 가학에서 배태되었다고 설명하였다.<sup>18)</sup> 택당의 아들 李端夏(1625-1689)와 이단하의 벗 申鋗(1628-1687)<sup>19)</sup> 또한 택당의 문장이 『한서』와 『사기』의 정수를 획득했다고 생각하였다.<sup>20)</sup>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택당이 당송고문만을 추송했다는 기존의 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 2. 『대가의선비평』의 저술과 구성

『대가의선비평』은 『澤堂先生遺稿刊餘』(이하 『간여』) 제10책에 실려 있다. 택당의 막내아들 이단하는 부친의 문집 간행을 염두에 두고, 유고 전체를 필사하여 1658년(효종 3)에 家藏本 『택당선생집』을 만들었다. 이 책은 1674년(현종 15) 송시열의 주도하에 간행된 『택당집』의 저본으로 활용되었다. 『간여』는 글자 그대로 『택당집』에 수록되지 못한 시문을 따로 정리한 것이므로, 『간여』에 실린 글은 대부분 『택당선생집』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택당집』에 실리지 않은 시문 가운데 『택당선생집』에만 보이는 글, 혹은 『간여』에만 보이는 글도 상당량에 이르는데, 이 중에는 택당의 문학적 견해가 제출된 기사도 적잖이 눈에 띈다. 『대가의선비평』이란 서목도 『택당선생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추정컨대 산문 비평집의 특성상 비평 내용에 비해 본문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탓에 『택당선생

曰，馬班章法。”『평회서비』에 가한 택당 비평의 구체적 합의는 윤지현의 위의 논문, 116-117쪽에 상세하다.

17) 『藥泉集』 권1 詩, 「金益亨言渠少時受學於鄭玄谷百昌其時鄭公寓居楊根江上任疏菴叔英李澤堂植俱斥於時居止相近從遊甚樂唱酬篇什溢於几案云余聞而感焉使金生誦所記三公詩各一章輒步其韻以識之.」

18) 『金陵集』 권13 題跋, 「書李參判翊模蒼谷詩抄後」. “澤堂先生詩法老杜, 文則酷嗜漢書, 李公之希風取道者, 在於家學.”

19) 신정은 택당의 처남인 沈熙世(1601-1645)의 사위다.

20) 『東國野話』, “畏齋李相公端夏自少有心恙。嘗與儕友語，以爲其先人澤堂班馬文章·程朱道學。汾崖申公鋗在座笑曰，文章則有之矣，道學則未也。”

집』에 수록하지 못하다가, 차후 『간여』를 엮는 과정에서 비평과 유관한 본문만을 간략하게 발췌하는 방식에 착안하여 재편집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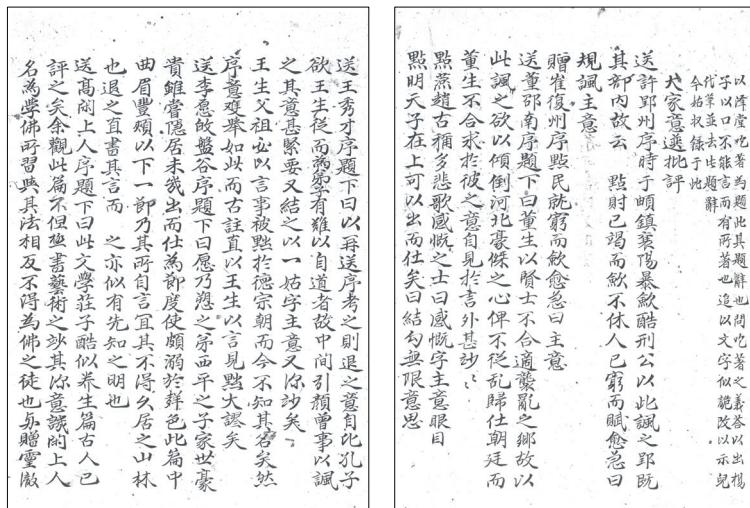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택당은 당송고문을 초록하여 숙독할 것을 당부했고, 실제로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손수 정선하고 비평하여 『대가의선비평』을 찬술하였다. 『대가의선비평』의 마지막 부분에는 “朱子는 ‘魂이 없다면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魂과魄이 모두 떨어지게 되었다.老子는 이 두 가지를 지켜 합치려 하였으니, 이른바 ‘致虛極, 守靜篤’이 바로 그것이다.’라 말하였다。(朱子曰, 無魂, 則魄不能自存, 今人多思慮役役, 魂都與魄相離了. 老氏便只要守得相合, 所謂致虛極守靜篤)”라는 문장이 써어 있다. 그리고 “이상의 문장은 ‘大家意選’ 표지에 적힌 내용이다.(右大家意選衣丈所書)”<sup>21)</sup>라는 雙行의 주석을 달아놓았다. 이는 택당이 내면 수양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하여 『대가의선』 표지에 적어놓은 일종의 좌우명인 셈이다.<sup>22)</sup> 이 기록을 통해 본래의 서명이 ‘大家意選’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sup>23)</sup>

택당은 『당송팔대가문초』(이하 『문초』)에 수록된 글 중에서 가작이라 여겨지는 42편의 작품을 선발하여 『大家意選』이라는 산문선집을 엮었고, 여기에 자신의 문학적 감식안을 투영하여 다양한 비평을 가하였다. 그리고 훗날 자손들이 『대가의선』을 수습한 뒤, 謄寫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발 작품의 제목과 택당의 평점, 비평만을 옮겨 적어 ‘대가의선비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특히 등사하는 과정에서 본문 가운데 택당의 비평과 유관한 부분만을 발췌한 점이 이채롭다. 예컨대 특정 표현에 평점을 치고 비평을 달았을 경우에는 “點~, 曰~”이라 표기하였고, 평점 없이 비평만 보일 때에는 “~下, 曰~”, 혹은 “~云云, ~” 등으로 서술하였다.

21) 필사본 『택당선생집』과 『간여』에는 ‘衣張’과 ‘衣丈’이 혼용되고 있는데, 모두 책의 표지를 뜻한다. 『택당선생집』 「山藏先稿全集後記事」, “府君(필자주: 李植)平生用力於窮格上至深, 每於觀書接物之際, 有所悟解及見聞, 卽於曆書及冊紙頭衣丈, 記之, 以備遺亡, 或錄諸休紙, 投之箱簏, 或作小冊, 而書之, 此類合書爲一冊, 卽所謂雜錄者也, 恨其雜亂無次序, 就其中, 欲刪煩訂謬, 分類成錄, 亦當爲可觀之書, 而精力不暇, 姑此藏置, 然不能無望於後人及吾子姪輩云.”; 『간여』 권16 「雜錄」, “右退憂堂集衣張手書.”

22) 주자의 입론은 『朱子語類』 권3에서 옮겨 적은 것이다.

23) ‘意選’은 임의대로[隨意] 가려뽑았다[選拔]는 뜻으로 일종의 겸사다.



도1-『대가의선비평』 첫째 면과 둘째 면

그렇다면 택당이 처음 『대가의선』을 엮고 여기에 비평을 가한 시기는 언제일까. 확인하기 어렵지만 杆城縣監으로 재직 중이던 1631년(인조 9)과 1632년 사이, 또는 그 직후로 추정된다. 『간여』에 수록된 「雜錄」은 독서나 接物의 과정에서 문득 깨닫거나 견문한 바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책력이나 종이 여백, 책표지, 휴지, 소책자 등에 메모한 것을 추후에 수합한 자료다.<sup>24)</sup> 여기에는 “두서 없는 아래의 기록들은 또한 신미년(1631)과 임신년(1632) 사이에 지어졌을 것이다.”<sup>25)</sup>라는眉註와 함께, 한유 문장에 대한 간략한 평석이 적혀 있다.

① 退之「王秀才序」也 “當時 醉鄉之後 又以直廢 既悲醉鄉之文思 又嘉良臣之烈思識其子孫”<sup>26)</sup> 分明是二人事 今註者合以爲一

② 「高閑上人序」敍其書法 至於“歌舞戰鬪”“勃然不釋”等語 皆譏閑學佛而欲學書之爲非 乃「送靈澈」·「文暢」詩意

이것을 『대가의선비평』에 수록된 비평과 비교해보면 내용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24) 각주 21) 참고.

25) 『譯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以下雜記冊, 疑亦辛未壬申間.”

26) 한유의 「送王秀才序」에는 “當此時, 醉鄉之後世, 又以直廢, 吾既悲醉鄉之文辭, 而又嘉良臣之烈, 思識其子孫, 今子之來見我也, 無所挾.”으로 되어 있다. 글자의 출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억에 의존하여 기술한 것 같다.

①-1 題下曰 以再送序考之 則退之意自比孔子 欲王生從而爲弟子 有難以自道者 故中間引顏曾事以諷之 其意繁要 又結之以一姑字主意 又深妙矣 王生父祖必以言事 被黜於德宗朝 而今不知其名矣 然序意雙舉如此 而古註直以王生以言見黜 大謬矣

②-1 題下曰 此文學『莊子』酷似「養生篇」古人已評之矣 余觀此篇 不但極書藝術之妙 其深意譏閑上人名爲學佛 所習與其法相反 不得爲佛之徒也 與「贈靈澈」詩意同 ○ 未又譏佛家多怪異 以明閑於此於彼必居一 則皆不得正也 其用意深且遠矣

①과 ①-1의 밑줄 친 부분은 「送王秀才序」의 전후 문맥을 감안할 때, 直言으로 견출된 자가 두 사람, 즉 王生과 王生의 선조라는 견해로서, 王生만을 지칭한다고 보는 기준 주석의 오류를 반박한 것이다. ②와 ②-1에서는 「送高閑上人序」에서 한유가 겉으로는 고한상인의 절묘한 서법을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승려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서예에 골몰하는 그의 그릇된 행태를 기록하는 뜻이 행간에 숨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함의의 작품으로 두 편의 한시를 예거했는데, 劉長卿의 「送靈澈上人還越中」과 劉禹錫의 「送文暢上人東游」<sup>27)</sup>가 바로 그것이다. 비평 내용의 詳略과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1631년과 1632년을 즈음한 시기에 『대가의선』에 수록된 한유 문장을 궁구하며 문득 떠오르는 바가 있어서 ①과 ②를 冊曆에 간략히 메모했다가, 추후 이것을 정리하여 『대가의선』에 옮겨 적었을 것이다.<sup>28)</sup> 참고로 택당이 두시를 批解하기 시작한 시기는 1629년 이전으로<sup>29)</sup> 학문과 문학의 원숙기에 접어들어 두시와 팔대가 문장을 대상으로 詩文 비평을 개진한 것이다.<sup>30)</sup> 『대가의선

27) 「文暢」은 劉禹錫의 「送文暢上人東游」를 말하는데, 택당이 숙독했던 『瀛奎律髓』 권47에 실려 있다.

28) 택당은 팔대가 문장에 비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유의 문장에 토를 달기도 하였다. 심경호 소장 『朱文公校昌黎先生集』 잔권(권18-19)의 내표지 안쪽에는 '上點者懸澤堂吐'라 적혀 있고, 권18의 書眉에는 '澤堂及崔豎吐釋句絕贍出'이라 써어 있다고 한다. 심경호, 「崔豎과 尹根壽의 『韓文吐釋』」, 『朝鮮時代 漢文學과 詩經學』(일지사, 1999), 195쪽.

29)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己巳條(필자주: 1629년, 택당 46세)에 두보의 「謁文公上方」을 읽은 소감을 적으며 당시 批解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時批解杜詩, 偶及文上人房詩(필자주: 「謁文公上方」), ‘久被(遭)詩酒污’, ‘廻向心地初’等語, 慨念人生老而迷途, 如杜公之賢, 晚乃有悟而所欲以祓詩酒之汚者, 不過異教, 則當時道學不明之故也, 乃杜公本心, 則不失爲己異教之善者不有愈於詩酒流湎喪性者耶, 仍欲和其韻以示同病之人, 而多務未遑也.”

30) 이외에도 택당은 雪汀 曹文秀(1590-1647)의 詩錄과 東溟 金世濂(1593-1646)의 「槎上錄」, 松溪 李麟奇(1549-1631)의 『松溪遺稿』, 頤齋 曹友仁(1561-1625)의 詩錄 등에 비평을 가하였다. 김덕수, 「澤堂 李植의 漢詩 批評」, 『韓國漢詩研究』 9집(2001); 김덕수, 「澤堂 李植의 漢詩論과 『澤風堂批解』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94-96쪽;

비평』에 수록된 42편의 문장을 순서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한유, 「送許郢州序」 (『문초』 권6)
- ② 한유, 「贈崔復州序」 (『문초』 권6)
- ③ 한유, 「送董邵南序」 (『문초』 권7)
- ④ 한유, 「送王秀才序」 (『문초』 권7)
- ⑤ 한유, 「送李愿歸盤谷序」 (『문초』 권7)
- ⑥ 한유, 「送高閑上人序」 (『문초』 권7)
- ⑦ 구양수, 「內制集序」 (『문초』 권45)
- ⑧ 구양수, 「送田晝秀才序」 (『문초』 권46, 「送田晝秀才寧親萬州序」)
- ⑨ 소철, 「古史序」 (『문초』 권162)
- ⑩ 한유, 「畫記」 (『문초』 권8)
- ⑪ 유종원, 「遊黃溪記」 (『문초』 권23)
- ⑫ 유종원, 「西山記」 (『문초』 권23, 「始得西山宴游記」)
- ⑬ 구양수, 「菱溪石記」 (『문초』 권48)
- ⑭ 구양수, 「豐樂亭記」 (『문초』 권49)
- ⑮ 구양수, 「醉翁亭記」 (『문초』 권49)
- ⑯ 구양수, 「有美堂記」 (『문초』 권48)
- ⑰ 왕안석, 「芝閣記」 (『문초』 권88)
- ⑱ 소순, 「彭州圓覺禪院記」 (『문초』 권116)
- ⑲ 한유, 「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 (『문초』 권15, 「唐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
- ⑳ 한유, 「試大俚評事王君墓誌」 (『문초』 권14, 「試大理評事王君墓誌銘」)
- ㉑ 한유, 「侍御史李君墓誌」 (『문초』 권15, 「殿中侍御史李君墓誌銘」)
- ㉒ 한유, 「貞耀先生墓誌」 (『문초』 권15, 「貞曜先生墓誌銘」)
- ㉓ 한유, 「故相權公墓碑」 (『문초』 권12, 「唐故相權國公墓碑」)
- ㉔ 한유, 「平淮西碑」 (『문초』 권11)
- ㉕ 한유, 「南海神廟碑」 (『문초』 권11)
- ㉖ 한유, 「羅池廟碑」 (『문초』 권12, 「柳州羅池廟碑」)
- ㉗ 한유, 「柳子厚墓誌」 (『문초』 권15)
- ㉘ 한유, 「馬少監墓誌」 (『문초』 권15, 「殿中少監馬君墓誌銘」)
- ㉙ 한유, 「樊紹述墓誌」 (『문초』 권15, 「南陽樊紹述墓誌」)
- ㉚ 한유, 「張徹墓誌」 (『문초』 권14, 「給事中清河張君墓誌銘」)
- ㉛ 유종원, 「姜秘書墓誌」 (『柳河東集』 권11, 「故秘書郎姜君墓誌」)
- ㉜ 유종원, 「趙襄陽丞墓誌」 (『문초』 권27, 「故襄陽丞趙君墓誌」)
- ㉝ 구양수, 「武恭王公碑」 (『문초』 권50, 「忠武軍節度使同中書門下平章事武恭王公神道碑銘」)
- ㉞ 구양수, 「王太尉碑」 (『문초』 권50, 「太尉文正王公神道碑銘」)

---

윤호진, 「澤堂의 願齋詩 비평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3집(2006).

- ③⁵⁵ 구양수, 「范文正碑」 (『문초』 권58,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
- ③⁵⁶ 구양수, 「尹博士墓誌」 (『문초』 권56, 「太常博士尹君墓誌銘」)
- ③⁵⁷ 구양수, 「石曼卿墓表」 (『문초』 권58)
- ③⁵⁸ 왕안석, 「上仁宗皇帝書」 (『문초』 권81, 「上仁宗皇帝言事書」)
- ③⁵⁹ 왕안석, 「本朝百年無事劄」 (『문초』 권82, 「本朝百年無事劄子」)
- ③⁶⁰ 왕안석, 「進戒劄」 (『문초』 권82, 「進戒疏」)
- ③⁶¹ 왕안석, 「時政疏」 (『문초』 권82, 「上時政疏」)
- ③⁶² 유종원, 「寄許孟容書」 (『문초』 권17, 「寄許京兆孟容書」)

작품의 제목을 『문초』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축약되거나 변형된 것이 적잖이 보인다. 『대가의선비평』에 수록된 글은 유종원의 「故秘書郎姜君墓誌」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초』에 실린 것들이다. 택당은 「고비서랑강군묘지」에 “유종원의 碑文은 本은 만한 것이 적다. 이것을 本은 이유는 그 제목을 보면 딱히 서술할 만한 것이 없는데, 鋪敍가 체격을 갖추어 볼 만하기 때문이다. (柳碑少可抄, 抄此者, 以其題無可敍而鋪敍有體可觀)”라는 비평을 하며 이 작품을 선발한 이유를 설명하였다.<sup>31)</sup> 서명은 ‘大家意選’이지만 기실 충분한 고심의 과정을 거쳐 팔대가 문장을 선발한 것이다.

택당은 문체를 기준으로 작품의 차서를 매겼다. 즉 送序類(1-6, 8), 序跋類(7, 9), 記文類(10-18), 碑誌類(19-37), 奏議類(38-41), 書簡類(42)의 순서다. 문체별로 수록된 작가와 작품 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送序類(7편): 한유 6편, 구양수 1편

序跋類(2편): 구양수 1편, 소철 1편

記文類(9편): 한유 1편, 유종원 2편, 구양수 4편, 소순 1편, 왕안석 1편

碑誌類(19편): 한유 12편, 유종원 2편, 구양수 5편

奏議類(4편): 왕안석 4편

書簡類(1편): 유종원 1편

택당은 『대가의선』을 엎으며 비지류와 기문류, 송서류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sup>32)</sup> 송서류와 비지류의 경우, 한유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구양수의 문장은 기문류와 비지류에 각각

31) 「故秘書郎姜君墓誌」는 『문장궤범』이나 『고문관전』 등 여타의 문장선집에도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종원의 『柳河東集』에서 따로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32) 송서류 작품 가운데 서발류가 혼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송서류와 서발류를 같은 범주로 파악한 것으로 여겨진다.

4편과 5편씩 실려 있다. 주의류에는 왕안석 작품만을 수록했는데, 왕안석 주의류에 구현된 부국과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풍자의식, 논리적 정합성과 명징성 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sup>33)</sup> 수록 작품을 작가별로 살펴보면 한유 19편, 유종원 5편, 구양수 11편, 소순 1편, 소철 1편, 왕안석 5편이다. 한유와 구양수의 문장을 다수 수록한 반면, 소순과 소철의 글은 1편씩 수록했고, 蘇軾과 曾鞏은 한 편도 실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三蘇의 글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문장의 기세는 뛰어나지만 검속이 부족하고, 유가의 의리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이다. 택당은 삼소의 학문을 평가하며 『莊子』와 『戰國策』에 뿌리를 둔 채, 종횡으로 치달려 전도되었고, 의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지하다고 폄하하였다.<sup>34)</sup> 그리고 『대가의선』에 소철의 「古史序」를 선발하고는 “蘇氏의 문장은 모두 도치된 채 치달릴 뿐인데, 이 문장만은 이치가 뛰어나고 의리가 방정하며 글의 기세가 雅正하다. 이 때문에 朱子가 극찬하며 그를 위해 현양해준 것이다.”라는 비평을 가하였다.<sup>35)</sup> 이는 「고사서」가 縱橫倒置한 풍격에서 빗겨 있는 극히 예외적인 작품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택당은 삼소의 비지류가 상대적으로 장황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sup>36)</sup> 그러나 「작문모범」에서 “三蘇가 『莊子』와 『國語』를 배우기는 했으나, 또한 한유의 범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大蘇(소식)는 비록 궤탄하지만, 文氣는 한유에게 뒤지지 않는다. 뜻을 위주로 하고 붓끝에 입이 있으니, 이것을 귀착점으로 삼아라.”라 말한 것처럼, 만년의 택당은 소식의 문학적 성취를 십분 인정하였다.<sup>37)</sup> 10여 년의 세월을 거치는

33) 예컨대 「上仁宗皇帝書」에 가한 “主意在富強”, “變法主意”, “意以大官自任, 以動人主, 然皆至論”, “名言惋辭”, “譏刺貴近, 似惋而實厲”, “變法大意悉觀”, “提掇應前”, “刺譏到頭, 詞簡而微”, “照領首意”, “通篇以人才不足爲主意” 등의 평어를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34)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惟三蘇之學, 本於莊子·戰國策, 縱橫倒豎, 全昧義理, 讀其文者當察之.”

35) “蘇氏文章, 皆倒置橫逸, 獨此文, 理勝義正, 詞氣爾雅, 所以朱子亟稱之, 為之發揮也.”

36) 택당은 구양수의 「太尉文正王公神道碑銘」에 “구양수의 비지류는 간혹 길다는 점이 병통이나, 이와 같은 문장은 표현이 간략하고 뜻이 낙낙한 바, 길다고 말할 수 없다. 소씨의 경우는 길다는 혐의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歐碑或病其長耳, 此等文, 紀簡而意足, 不可謂長, 蘇則恐不免長耳)”라는 평을 달았다. 삼소의 비지류가 상대적으로 장황하다는 단점을 지녔다고 생각한 것이다.

37) 소식의 학문적 연원이 정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에 내재된 기세와 곡진한 표현력을 극찬한 것은 택당의 문학을 단순히 유가적 이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하나의 실례다.

동안, 소식 문장에 대한 문학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선발 작품이 40여 편에 국한된 바 중정한 의리를 바탕으로 문체별로 우이를 점했던 다른 작가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인지는 본고에서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삼소의 문학적 성취, 특히 소식의 필력에 대해 상당한 인식의 변화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 III. 『대가의선비평』을 통해 본 택당의 문장관

『대가의선비평』에는 작품의 대의나 특정 구절의 함의를 설명하고, 기존 주석의 오류를 질정하며<sup>38)</sup>, 여타 시문과 견주어 풍격과 주제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층위의 비평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평은 행간의 의미와 전후 맥락을 통찰하는 택당의 빼어난 감식안을 십분 반영한다. 그러나 주석의 속성이 농후하거나 혹은 의미가 모호한 풍격 용어를 구사한 경우, 이들 비평을 통해 당송고문에 대한 택당의 문장관을 도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본장에서는 팔대가문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을 지적한 택당의 비평과 여타 관련 자료를 유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택당의 안목에 포착된 당송고문의 제반 특징을 살펴보겠다.

#### 1. ‘辭約理足’과 ‘雍容俯仰’의 추구

역대 문장가들은 簡要를 작문의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였다. 간요란 간결한 표현 속에 이치를 주밀하게 담아내는 것이다. 표현의 간결성을 중시한 나머지, 자구를 지나치게 생략하여 작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簡要가 아니라 疏略으로 전락하고 만다.<sup>39)</sup> 택당은 팔대가문

38) 기존 주석의 잘못을 지적했으나, 도리어 오류를 범한 경우도 보인다. 상밀한 주석이 가해진 팔대가의 개별 문집을 접하지 못한 채, 전후 문맥만으로 의론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초』와 『대가의선비평』에는 「送王秀才序」라는 2편의 작품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택당은 2편에 보이는 王秀才를 동일 인물로 여기며 기존 주석의 오류를 반박하였다. “王生父祖必以言事被黜於德宗朝, 而今不知其名矣. 然序意雙舉如此, 而古註直以王生以言見黜, 大謬矣.” 그러나 전편의 王수재는 王舍이고 후편의 王수재는 王墳으로 두 사람은 애당초 다른 인물이다. 『문초』에는 두 작품이 「宋王秀才序」라는 제목으로 실린 반면, 『昌黎文集』과 『文章軌範』 등에는 「送王舍秀才序」와 「送王墳秀才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9) 陳軻, 『文則』 卷上. “且事以簡爲上, 言以簡爲當, 言以載事, 文以著言, 則文貴其簡也. 文簡而理周, 斯得其簡也. 讀之疑有闕焉, 非簡也疎也.”

가운데 간결한 문장 속에 작자의 뜻을 충분히 표현한 작품을 고풍하였다.

- ① 點起頭十字 曰 起頭簡要得體 (한유, 「畫記」)
- ② “顏·胤·武合攻”云云 章法出『漢史』高祖元勳傳 亦簡要有體 (한유, 「平淮西碑」)
- ③ 點“好學, 孝敬祥順” 曰 敘德行甚約 (한유, 「故相權公墓碑」)
- ④ 自‘神付’至‘此哉’云云 約而言之極簡 (유종원, 「趙襄陽丞墓誌」)
- ⑤ 敘述磊落 言簡而事盡 有屈折抑揚 (구양수, 「送田畫秀才序」)
- ⑥ “爲婦人服”云云 敘法甚簡要 (구양수, 「武恭王公碑」)
- ⑦ 歐碑或病其長耳 此等文紀簡而意足 (구양수, 「王太尉碑」)

①은 한유의 「畫記」에 가한 비평의 일부다. 「화기」는 두루마기에 그려진 수많은 인물과 동물의 형상을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인데, 글의 서두는 “고금 인물의 자그마한 그림을 뒤섞었는데 도합 두루마기 하나다. (雜古今人物小畫共一卷)”로 시작된다. 택당은 이 열 글자에 평점을 찍은 뒤, “글머리를 일으킨 것이 간략하되 요점을 말하여 마땅한 체재를 얻었다.(起頭簡要得體)”라 평하였다. ②에서도 특정 표현에 구현된 章法의 소종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簡要有體’를 그 미적 경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③에서 ⑦까지는 “敘德行甚約”, “約而言之極簡”, “言簡而事盡”, “敘法甚簡要”, “紀簡而意足” 등의 평어를 달았는데, 간결한 서술 속에 작자의 의도를 넉넉하게 드러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택당은 특히 ①의 경우처럼 記事文의 서두를 시작할 때, 간결한 문장을 활용한 점에 주목하였다. 작품 전체를 이끌고 관류하는 짤막한 문장을 글머리에 툭 내던집으로써 간명하고 자연스러운 미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전후 맥락의 유기적 긴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택당은 구양수의 「醉翁亭記」에 “주자는 일찍이 「취옹정기」 초고를 본 적이 있는데, 서두에서 산과 시내를 묘사한 수백 글자는 모두 지워버린 채, ‘滁水를 애워싼 것은 모두 산이다.’라는 다섯 글자만 써어 있었다고 한다.(朱子嘗見草本, 首敍山溪數百字, 皆抹去, 只書‘環滁皆山也’五字云)”라는 평을 달았다.<sup>40)</sup> 구양수 문장에 대한 주자의 입론으로 자신의 견해를 대신한 셈이다. 滁州太守를 역임하던 구양수는 글머리를 생생하고 아름답게 묘사하고자 고심했으나, 결국 수백 자에 이르는 장황한 표현은 모두 지워버리고 ‘環滁皆山也’라는 간명한 문장으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簡要’는

40) 朱子가 「醉翁亭記」를 평한 내용은 『朱子語類』 권139에 수록되었는데, 글자의 출입이 다소 보인다.

팔대가 문장을 특징짓는 작법상의 요건이자 미감의 하나다.

한유의 「畫記」는 기사문의 正體로 평가받는 작품이다.<sup>41)</sup> 이 글에 가한 택당의 아래 비평은 팔대가 문장과 대비되는 의고적 글쓰기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문장은 표현이 간략하나 이치가 넉넉하고, 작자의 정취를 곡진히 표현하였다. 崔東臯(필자주: 崔豈)가 이러한 점을 취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此文, 簿約理足, 曲極情致, 而崔東臯不之取, 何耶!)<sup>42)</sup>

「화기」의 미적 특징을 ‘간략한 표현과 넉넉한 이치[辭約理足]’, ‘곡진하게 표현한 작자의 정취[曲極情致]’로 규정한 뒤, 이러한 측면을 배우지 못한 簡易 崔豈(1539-1612)의 문장에 불만의 뜻을 표시하였다.<sup>43)</sup> 택당은 다른 글에서 최립의 시와 문장을 모두 고평하며 宣祖代 최고의 문장가로 칭송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sup>44)</sup> 그러나 위의 비평에서는 ‘辭約理足’과 ‘曲極情致’의 부재를 헐난하며, 최립이 당송고문의 작법을 체득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아래의 글은 『간여』「雜錄」에 실린 것으로 최립의 산문 창작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필자주: 崔豈)의 문장은 세칭 ‘동국체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자구의 조직과 전개[關鍵節拍]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온화하게 오르내리는[雍容俯仰] 부분이 없다. 이것은 움켜쥐는 것[把持]이 너무 지나친 병폐다. 古文은 이와 같지 않다.(其文, 則世號東國第一. 然余觀之, 關鍵節拍太嚴, 無雍容俯仰處. 此把持太過之病也. 古文不如此)<sup>45)</sup>

최립의 문장은 논리의 전개와 자구의 조직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추구한 탓에<sup>46)</sup> 온화하게 오르내리는[雍容俯仰]<sup>47)</sup> 부분이 없다는 점을

41) 徐師曾, 『文體明辨』 3(昨晨社 영인본(1984), 347-383쪽).

42)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7 「大家意選批評」.

43) 허균은 최립에게 서간을 띄우며 최립의 문장이 班固와 韓愈에서 유래했다고 평가하였다. 許筠, 『惺所覆瓿藁』 卷20, 「文部」17, 尺牘上, 「與崔簡易」, “世人不知文者, 悥卑公詩, 此太噴駁. 公文雖悍杰, 亦從班掾·昌黎中來也.”

44)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崔東臯詩律出於黃陳, 沈雄謹嚴, 不雜俗下一句.”; 洪萬宗, 『詩評補遺』 下篇. “澤堂澤堂有宣廟朝六絕(詩亦鬼簿體也)詩曰, ‘理學陶山正, 文章簡易奇. 飛騰景洪筆, 敏捷汝章詩. 忠武樓船將, 驩城廊廟姿. 先朝培養效, 才俊盛於斯.’”

45)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46) ‘關鍵’은結構, 즉 논리의 전개와 자구의 안배를 지칭한다. 송나라 周必大는 『二老堂詩話』에서 소식의 「壽星院寒碧軒」詩를 “蘇文忠公詩, 初若豪邁天成, 其實關鍵甚密.”라고 평한 뒤, 모든 시구가 詩題의 뜻과 긴밀하게 상관됨을 지적하였다. ‘節拍’은 절주와

이유로 들며, 해동제일의 문장가로 일컬어지는 그의 문장은 결코 古文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병폐의 원인은 움켜쥐는 것[把持]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把持’가 지나치다는 것은 작문에 임할 때, 어휘나 어법의 선택, 자구의 포치, 논리적 정합성 등 작품의 형식미에 부심한 나머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미감을 드러낸다는 뜻이다.<sup>48)</sup> 최립은 심오한 의미와 비범한 수사를 창출하기 위해 一字一句라도 고문의 규범에 합치시키고자 골몰하였다. 이에 의미가 자못 난해하고 표현이 지나치게 걸끄러운 폐단을 노정하기도 하였다.<sup>49)</sup> 그의 글에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미감이 결여된 것은 이러한 편집증적 문장의 때문이다. 적어도 택당의 견지에서 ‘雍容俯仰’한 미감은 고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하나의 선결요건이었다.

택당은 최립이 제자 金靜厚(1576-1640)에게 써준 발문을 인용하며 올바른 작문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최립은 金靜厚에게 발문을 지어주며 작문법을 가르쳤다. 문장의 병폐는 넓게만 하되 맷어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고, 우뚝하게 하되 평평하게 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그러나 그 병폐는 넓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맷어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요, 우뚝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이상의 두 조항은<sup>50)</sup> 詩文의 正法을 잘 보여주나, 체득하기가 매우 어렵다.(崔東臯贈金正厚跋語教以作文法也。文之病在於汗漫而不知節, 崖岸而不肯平。然其病不在於汗漫而在於不知節, 不在於崖岸而在於不肯平。右二條可觀詩文正法, 然得之甚難).<sup>51)</sup>

---

박자가 아닌, ‘법도’에 맞는 시문의 전개를 뜻한다.

47) 택당이 말한 ‘雍容俯仰’은 주희의 글에 출전을 두고 있다. 『晦庵集』 권64 書「答輩仲至」. “記文甚健, 說盡事理, 但恐亦當更考歐會遺法, 料簡刮摩, 使其清明峻潔之中自有雍容俯仰之態, 則其傳當愈遠而使人愈無遺憾矣.”

48) 최립이 작문에 있어 法과 辭를 중시한 점은 심경호, 「崔峴의 문장지문론과 고문사」, 『진단학보』 65호(진단학회, 1988) 참고.

49) 『谿谷集』 권6 序 「簡易堂集序」. “其爲文, 刻意湛思, 一句字, 皆繩墨古作者. 草藁不三四易, 不出也. 意過深而寧晦, 母或淺, 語過奇而寧澁, 母或凡.”

50) 여기서 인용한 것은 두 번째 조항으로 첫 번째 조항은蘇軾이 明上人에게 작시의 첨경을 가르친 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坡는 明上人에게 2편의 頌을 주었는데, 대개 시 짓는 첨경을 가르친 것이다. ‘글자마다 奇險함을 추구하고, 시구마다 지엽적인 것에 얹매이니, 30년 동안 읊조려도, 더더욱 맥락이 통하지 않네.’ ‘임만 열면 일상적인 말을 꺼내며, 전인의 법도를 본받는다. 사람들은 妙處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묘처는 바로 여기에 있다네.’(東坡贈明上人二頌, 盖教人作詩捷法也. ‘字字覓奇險, 節節累枝葉. 咬嚼三十年, 轉更無交涉.’ 衡口出常言, 法度法前軌. 人言非妙處, 妙處在於是)” 소식은 이 글에서 기이하고 협괴한 표현이 아닌, 법도에 맞는 일상적 시어를 구사하는 것이 작시의 묘처에 이르는 첨경임을 말했고, 택당도 이에 동의하였다.

51)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7. 이 글은 『簡易集』 권3에 실려 있는 「書金秀才靜厚願學錄後

문장의 병폐는 넓게만 하되 맷여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汗漫而不知節] 있고, 높게만 하되 평평하게 하지 않으려는 데[崖岸而不肯平] 있다. 이러한 지적은 ‘汗漫’과 ‘崖岸’이 작문에 있어서 불필요한 측면으로 읽혀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 문장의 병통은 ‘汗漫’과 ‘崖岸’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不知節’과 ‘不肯平’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문장의 호활한 스케일과 드높은 기세를 합의하는 ‘汗漫’과 ‘崖岸’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知節’과 ‘肯平’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로서, 이 역시 文氣의 자연스런 변화와 기복에 주목한 것이다.<sup>52)</sup> 이처럼 택당은 작자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는 간결한 표현, 논리의 전개와 자구의 조직이 인위적이지 않은 온화하고 자연스런 미감, 스케일과 기세의 변화와 기복 등을 의고문과 변별되는 당송고문의 미적 특징으로 간주하였다.

## 2. 풍자의식의 완곡한 발현

국내외적으로 다난의 시대를 체험한 택당은 공소한 감정의 유로보다는 현실의 모순과 자신의 의론을 표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는 늘 자신의 글을 자평하며 “나의 글은 刺客과 奸人의 尺鐵殺人과도 같다.”고 말했고<sup>53)</sup>, 위태로운 세상에서 감히 직설할 수 없었기에 비속한 표현을 통해 현실을 풍자했다고 자술했는데<sup>54)</sup>, 이는 문학의 대사회적 기능을 염두에 둔 언질이다. 『대가의선비평』에 수록된 42편의 작품 가운데 풍자의 뜻이 있다고 지적된 것(8편)은 대부분 錢別에 임하여 지어진 送序類(6편)다. 이채롭게도 이를 송서류는 모두 한유의 작품이다. 풍자의식의 완곡한 발현을 당송고문, 특히 한유 송서류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긴 것이다. 이러한 송서류에는 이별의 정회와 권면의 뜻 이면에 상대방에 대한 기롱의 뜻, 혹은 현실의 질곡과 부조리, 작자의 정치적 견해 등이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

52) 序의 일부분을 축약한 것이다. 『簡易集』에는 ‘汗漫’이 ‘汎濫’으로 되어 있다.

53) 『大家意選批評』에 보이는 ‘敍致抑揚’, ‘屈折抑揚’ 등의 평어도 기세의 변화를 주목한 것이다.

54) 南龍翼, 『壺谷詩話』. “澤堂於行文儼文, 無不兼該, 詩則格不甚高而各體俱妙, 常自評曰 ‘吾文如刺客奸人, 尺鐵殺人’. 盖謂切中其要妙處, 詳簡而意精也.”

55)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著」. “俚俗之語有可警者. 余生於危世, 不敢直說, 有所橫諷, 人以好諷歸之. 近亦不復作也.”

① 時于頓鎮襄陽暴斂酷刑 公以此諷之 鄢旣其部內故云 點“財已竭而斂不休 人已

窮而賦愈急” 曰 規諷主意” (한유, 「送許郢州序」)

①-1 按 『唐書』 于公多刻 退之文多托之以諷 (茅坤 評)

② 點“民就窮而斂愈急” 曰 主意 (한유, 「贈崔復州序」)

②-1 此與「送許郢州書」同意 而規諷于公處最含蓄 (茅坤 評)

①과 ②는 각각 鄢州刺史와 復州刺史로 부임하는 지인을 송별하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공히 두 지역을 관할하는 于頓이라는 관찰사의 폭정을 ‘완곡하게’ 풍자하였다.<sup>55)</sup> 택당의 비평을 茅坤의 것과 비교하면 내용상의 유사성이 엿보이는 바, 모른 주석의 영향을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택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풍자하는 연유를 밝히고, 풍자의宗旨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에 평점을 가한 뒤, ‘(規諷)主意’라는 평어를 달았다. ‘(規諷)主意’라 평하며 평점을 가한 구절은 ‘而’를 중심으로 균칭한 대우를 이루거니와 전후 대조와 비교급을 활용하여 작자의 의론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한유 작품을 관류하는 풍자의 식과 주제문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택당의 산문 창작에 일정한 영향을 드리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① 題下曰 董生以賢士不合適襲亂之鄉 故以此諷之 欲以傾倒河北豪傑之心 傀不從亂 歸仕朝廷 而董生不合求於彼之意 自見於言外 甚妙甚妙 (한유, 「送董邵南序」)

② 題下曰 以再送序考之 則退之意自比孔子 欲王生從而爲弟子 有難以自道者 故中間引顏曾事以諷之 其意甚緊要 (한유, 「送王秀才序」)

③ 題下曰 愿乃憇之弟 西平之子 家世豪貴 雖嘗隱居 未幾出而仕爲節度使 頗溺於聲色 此篇中“曲眉豐頰”以下一節 乃其所自言 宜其不得久居之山林也 退之直書其言 而□<sup>56)</sup>之 亦似有先知之明也 (한유, 「送李愿歸盤谷序」)

④ 題下曰 此文學『莊子』酷似「養生篇」古人已評之矣 余觀此篇 不但極書藝術之妙 其深意譏閑上人名爲學佛 所習與其法相反 不得爲佛之徒也 與「贈靈澈」詩意同 ○ 末又譏佛家多怪異 以明閑於此於彼必居一 則皆不得正也 其用意深且遠矣 (한유, 「高閑上人序」)

55) 반면 임금에게 시정의 폐단을 상주하는 글에서는 풍자와 기통의 뜻을 거침없이 표달하였다. 왕안석의 「上仁宗皇帝書」에 “左右通貴云云, 譏刺貴近, 似惋而實厲”; “今朝廷悉心於云云, 刺謗到頭, 詞簡而微” 등의 평어가 보인다.

56) □: 문맥을 고려할 때 ‘諷’ 또는 ‘譏’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⑤ “追占其夢”云云 李君告夢 盖自矜還冊之成而遽死 故退之仍付會以諷刺其信怪  
(한유, 「侍御史李君墓誌」)

이상의 작품은 개인적 범주의 풍자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대사회적 현실인식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 그러나 풍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점은 매한가지다.<sup>57)</sup> ①과 ②에 보이는 ‘諷’의 함의는 ‘풍자’보다는 ‘완곡한 권유’에 가깝다. ①은 진사시에 낙방하고 河北으로 떠나는 董邵南을 전송한 글로서, 조속히 돌아와 출사하라는 권유의 뜻을 절묘하게 행간에 담아내었다. ② 역시 우회적인 用事를 통해 王秀才가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넘지시 비쳤는데, 그 뜻이 매우 절실하다고 평하였다. ③에서 ⑤까지는 개별 작품의 이면에 상대방을 기롱하거나 풍자하는 뜻을 부쳤다. ③은 盤谷으로 은거하는 李愿이 여색에 탐닉하는 성향 탓에 끝내 산림에 은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을 이원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④와 ⑤에서는 승려로서의 수행을 도와시한 채 서법에 골몰하는 高閑上人의 행태와 佛家 자체의 괴이함, 殿中侍御史 李虛中이 음양오행과 점술을 맹신한 측면을 풍자하였다. 특히 ⑤의 경우는 사자를 추모하며 그 행적을 기술한 碑誌類인데, 이러한 문체에서 풍자의 뜻을 읽어낸 점은 택당이 풍자의식을 한유문장의 주요한 특징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3. 주제문의 설정과 전후 문장의 호응

作詩에 있어 시상의 유기적 전개와 시구 간의 긴밀한 조응은 작품의 공줄을 결정하는 관건이다.<sup>58)</sup> 그리고 한 글자의 詩眼을 정밀하게 운용함으로써 섬세한 장면을 포착하고, 시편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산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주제를 착안하여 주제문을 마련하면, 전후의 문장은 주제문과 긴밀한 승집을 이루어야 논리적 명징성과 균제미

57) 참고로 택당은 杜詩 구법의 특징으로 ‘托意深遠’을 주목하며, 풍자의 뜻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였다. 『石洲集』을 산정할 때 ‘풍자의 뜻이 너무 심한[譏刺已深]’ 작품을 선발하지 않은 점은 좋은 실례라 할 것이다. 『宋子大全』 권147 跋「石洲別集跋」.

58) 택당은 인과나 호응을 이루는 시구를 전후에 배치함으로써 점충적이고 유기적인 시의 를 창출하는 것이 두보 구법의 전형이라고 평하였다. 김덕수, 「택당의 한시론과 『택풍 당비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163-181쪽.

를 확보한다.

- ① 點“財已竭而斂不休 人已窮而賦愈急” 曰 **規諷主意** (한유, 「送許郢州序」)
- ② 點“民就窮而斂愈急” 曰 **主意** (한유, 「贈崔復州序」)
- ③ 點“燕趙古稱多悲歌慷慨之士” 曰 **‘感慨’字** **主意眼目**, 點“明天子在上, 可以出而仕矣” 曰 **結句無限意思** (한유, 「送董邵南序」)

각각의 문장 중에서 한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主意]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에 평점을 표시하였다.<sup>59)</sup> 특히 ③에서는 “燕나라와趙나라 지역은 예로부터 강개에 차고 비장한 노래를 부르는 선비가 많다고 칭해지네.(燕趙古稱多悲歌慷慨之士)”라는 열한 글자가 핵심 문장이고, 이 중에 ‘感慨’자가 핵심이[眼目]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하였다. 물론 평자의 입장에서 한유 문장의 체재와 의미를 분석한 것이지만, 이것을 실제 산문창작에 응용한다면 핵심 문장과 핵심어를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 작문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택당이 **主意**라는 개념을 활용해 문장을 분석한 방법은 茅坤과 唐順之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sup>60)</sup> 택당은 記事文의 정종으로 평가한 『한서』와 『사기』를 분석하며, 반고와 사마천이 개별 작품을 제작할 때, ‘작품 전체를 통솔하는 하나의 의론[一箇主宰之論]’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점에 주목하기도 하였다.<sup>61)</sup>

- ① “公以將家”云云 **再提撥** (구양수, 「武恭王公碑」)
- ② 序末端 曰 **應前‘憂樂天下’語** (구양수, 「范文正碑」)
- ③ “文章六十篇”云云 **應前‘文章’字** (구양수, 「尹博士墓誌」)
- ④ “惜其可獻”云云 **照前** (왕안석, 「芝閣記」)

59) 『대가의선비평』 중에는 ‘主意’와 유사한 용어로 ‘大旨’, ‘綱領’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① 以‘名’字爲**綱領** (한유, 「河中府法曹張君墓碣銘」)
- ② 點“公在相位至諡文公” 曰 **綱領一句** (한유, 「故相權公墓碑」)
- ③ “常自誦”云云 **一篇大旨** (구양수, 「范文正碑」)

60) 당순지는 『送王秀才序』(『문초』 권7)에 “此是立主意之文, 而緊要全在‘好舉孟子之所道者’一句.”라는 평을 가했고, 모곤은 『進學解』(『문초』 권10)에 “此韓公正之旗堂堂之陣也. 其主意專在‘宰相’, 盖才小用, 不能無憾, 而以怨懟無聊之辭托之.”라는 평을 달았다.

61) 『澤堂先生別稿刊餘』 권16 「雜錄」. “作史者, 莫高馬·斑. 兩人之於史傳, 必先定一箇主宰之論, 如傳李斯主姦貪, 傳韓信主智用, 傳英布主勇功, 傳陳平主用智宰物, 傳留侯主爲韓復讐, 傳博陵主篤行無學. 此非有論說褒貶, 其間各取其人資材相近者附之, 點綴照應, 使人讀之, 自不知其爲後人之撰造, 宛如其人之在目, 可貴也.”

⑤ “教之養之”云云 提掇應前 ○ “臣幸以職事”云云 照領首意 (왕안석, 「上仁宗皇帝書」)

위 비평은 팔대가 문장이 전후로 유기적 호응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 부분이다. 자구의 조직과 문장의 기세가 아무리 참신하고 힘이 있어도, 전후 문장이 긴밀한 맥락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 밀도와 감동이 상쇄되기 마련이다.<sup>62)</sup> 택당이 팔대가문에서 전후 문장의 승첩과 호응을 중시한 점은 바로 이 때문이다. 택당의 이러한 문장 독법이 산문의 감상과 창작, 두 가지 측면에 일정한 영향을 드리웠음은 자명한 이치다. 다음은 평이한 글자를 적실하게 운용하여 문단을 매듭지음으로써 작자의 의도를 절묘하게 드러낸 경우다.

① 退之意自比孔子 欲王生從而爲弟子 有難以自道者 故中間引顏曾事以諷之 其意甚緊要 又結之以一‘姑’字 主意又深妙矣 (한유, 「送王秀才序」)

② “可謂靈也” 因州人請書其所言 而不欲保其誕 只以‘靈’之一字結句 (한유, 「羅池廟碑」)

③ 大旨收結‘斷’字 歸功於上 (한유, 「平淮西碑」)

①은 「送王秀才序」의 마지막 부분이다. 한유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속내를 ‘姑’자를 통해 완곡히 드러낸 바, “‘姑’라는 한 글자로 맺으니, 주된 뜻이 또한 더욱 심오하고 절묘하다.”라는 평을 달았다. 택당이 고평한 해당 문장은 “애석하구나! 내 능력으로 자네를 현양시킬 수 없고, 세상이 자네 말을 믿어주질 않으니. 자네가 길을 나설 즈음에 일단 함께 술을 마시노라.(惜乎! 吾力不能振之, 而其言不見信於世也, 於其行, 姑與之飲酒)”이다. ‘일단’이라는 부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왕수재를 만류하여 제자로 삼고 싶은 애틋한 심정을 완곡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한 것이다. ②는 자신의 죽음과 사후의 일들을 예언한 柳宗元의 일화가 허탄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靈’이라는 글자로써 단락을 맺었다는

62) 洪汝河는 한유 비문의 체제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首尾와 關鍵이 상응하는 경우, 銘文과 序文이 相應關鎖하는 경우, 序文의 起頭字에서 銘文의 기두자를 취하는 경우다. 『木齋集』 권4 書 〈答朴定卿鑄圭〉. “讀韓碑法, 則體制大槩有三, 墓誌小文字, 雖不出數十行, 首尾關鍵, 必有相應處, 如云俱爲縣令南方, 婴兒汴也, 鄭鄆皆在江南之類, 且如盧東美誌文, 關鍵詳密重複, 字字相應, 故不復爲銘也, 如平淮西·徐偃王等大文字, 序末不必相應, 何者, 將就銘文中重鋪敍, 一一與序文, 相應關鎖故也, 又勿論篇大小, 銘文起頭字, 概取序文起頭爲之, 故孔憲序, 首稱孔君, 故銘首曰, 尤義孔君, 張徹則首稱其名, 故銘曰, 鳴呼徹也, 子厚首稱子厚, 故銘曰, 是惟子厚之實, 孟貞曜·平淮西·徐偃王碑, 皆然.”

뜻이다. 택당은 ‘靈’을 ‘영험하다’가 아닌 ‘허령하다’는 의미로 파악하며, 작자의 심중을 은연중에 표현한 結句의 실례로 여긴 것이다. ③은 「平淮西碑」銘文 중에 “무릇 이번에 蔡州를 정벌한 공로는 오직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네.(凡此蔡功, 惟斷乃成)”에 대한 평이다. 淮西의 반란을 토벌한 공적을 ‘결단하다[斷]’는 글자로써 공교롭게 수렴하여 모든 전공을 황제에게 돌렸다는 의미다. 이처럼 택당은 주제문의 설정과 전후 문장의 긴밀한 호응 및 승첩, 평범한 글자를 절묘하게 활용한 結句의 수법 등을 팔대 가문장, 특히 한유 문장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 IV. 맷음말

택당은 문장의 소통성과 시의성을 강조하며 당송 이하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茅坤의 『당송팔대가문초』를 가장 中正한 문장선집으로 평가했는데, 말년의 택당은 팔대가 중에 한유와 소식을 가장 추숭하였다. 택당은 명대 의고주의를 죽는 당대의 관성적인 문풍과 그들의 ‘편협한 독서 행태’를 통렬히 비난하였다. 그렇다고 진한고문 자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당송고문의 연원이 진한고문에 있고, 문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전적에 내재된 필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문체별로 전범의 범위를 소급, 확장하였다. 택당의 다기한 비평은 진한고문에 정통했던 그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거나와, 후대의 여러 문인도 그가 『한서』와 『사기』의 정수를 획득했다고 평가하였다.

택당은 1631년(인조 9)과 1632년을 전후한 시기에 『문초』에 수록된 글 중에서 가작이라 여겨지는 42편의 작품을 선별하여 『大家意選』이라는 산문선집을 엮은 뒤, 평점과 비평을 활용하여 자신의 문학적 감식안을 투영하였다. 그리고 훗날 자손들이 『대가의선』을 수습한 뒤, 謄寫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발 작품의 제목과 택당의 평점, 비평만을 옮겨적어 ‘대가의선비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택당은 문체를 기준으로 팔대가 작품의 차서를 매겼는데 碑誌類와 記文類, 送序類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송서류와 비지류의 경우에는 한유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택당은 팔대가 문장을 비평하며 작자의 의취를 충분히 드러내는 간결한

표현, 논리 전개와 자구 조직이 인위적이지 않은 온화하고 자연스런 미감, 스케일과 기세의 변화와 기복 등을 의고문과 변별되는 당송고문의 미적 특징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공소한 감정의 유로보다는 현실 모순과 자신의 의론의 표달을 중시한 바, 풍자의식이 완곡하게 발현된 작품을 당송고문, 특히 한유 송서류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겼다. 이들 송서류에는 이별의 정회 이면에 상대에 대한 권면이나 기롱의 뜻, 혹은 현실의 질곡과 부조리, 작자의 정치적 견해 등이 투영되어 있다. 끝으로 택당은 주제문의 설정과 전후 문장의 긴밀한 호응, 평범한 글자를 절묘하게 활용한 結句의 수법 등을 팔대가 산문에 구현된 작법상의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대가의선비평』은 현전하는 산문 비평집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저술로 여겨진다. 비록 간행되지 않은 탓에 널리 읽히지는 못했지만, 본 자료를 통해 비평가로서 택당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고, 의고적 글쓰기가 만연하던 시대에 택당이 견지했던 이상적인 고문의 요건과 수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택당이 제기한 다양한 층위의 입론들은 현대의 고문 연구자에게 산문 분석의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택당의 문학관이 삶의 궤적에 따라 적잖은 변화를 보이고, 문학실천과 문학입론 사이에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바, 택당 문학에 대한 올바른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南公轍, 『金陵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南九萬, 『藥泉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宋時烈, 『尤庵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李端夏, 『畏齋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李植, 『澤堂先生遺稿刊餘』, 個人所藏本.  
李植, 『澤堂先生集』, 奎章閣 所藏本.  
李植, 『澤堂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李植, 『纂註杜詩澤風堂批解』, 藏書閣 所藏本.  
崔峩, 『簡易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許筠, 『惺所覆瓿藁』,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洪汝河, 『木齋集』,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茅坤, 『唐宋八大家文鈔』.  
徐師曾, 『文體明辨』.  
朱熹, 『朱子語類』.  
朱熹, 『晦庵集』.  
陳驥, 『文則』.

강명관, 『안쪽과 바깥쪽』. 서울: 소명출판, 2007.  
김덕수, 「택당 이식의 한시 비평」. 『한국한시연구』 9집, 한국한시학회, 2001.  
\_\_\_\_\_, 「택당의 한시론과 『택풍당비해』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학』. 서울: 일지사, 1999.  
윤지훈, 「택당 이식의 『대가의선비평』과 산문창작의 실제」. 『한문학논집』 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99-132쪽.  
윤호진, 「택당의 頤齋詩 비평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23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133-171쪽.  
方回 選評, 李慶甲 集評校點, 『瀛奎律髓彙評』. 上海古籍出版社, 2005.

## 국 문 요 약

17세기 전반기의 문단을 대표하는 택당 이식은 시문 창작과 비평을 통해 당대와 후대의 문학에 커다란 영향력을 드리웠다. 특히 여타의 문인에 견주어볼 때, 문학비평 방면에서 그가 이룩한 성과는 주목을 요한다. 그는 杜詩 전체를 대상으로 批解를 수행하여 『纂註杜詩澤風堂批解』라는 걸출한 비평서를 완성했고, 여러 지우의 詩錄에 정밀한 조감을 투영하였다. 그리고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대상으로 『大家意選批評』이라는 산문 비평집을 남겼으며, 韓愈의 문장에 구결을 달기도 하였다.

본고는 『대가의선비평』의 저술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검토한 뒤, 당송고문에 대한 택당의 문학적 견해를 도출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그의 저술을 적극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했고, 택당이 생각했던 古文의 요건과 수사적 특징을 구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택당의 문학관은 삶의 궤적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이거나와, 문학적 실천과 문학적 견해 사이에도 적잖은 괴리가 존재한다. 택당이 정대한 의리를 중시하며 당송고문을 문장의 전범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진한고문 자체의 가치와 중요성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진한고문을 표방한 의고적 문풍과 여기에 매몰된 관성적 풍조, 편협한 독서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당송고문을 비평하며 문장에 내재된 기세, 간결하고 곡진한 표현, 文氣의 기복과 변화, 자구의 유기적 조직 등을 중시하였고, 모곤과 당순지의 비평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택당이 고문의 수사와 형식미에 주목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자, 택당의 문학을 단순히 유가적 이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하나의 실례다.

투고일 2010. 6. 21.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11.

**주제어(keyword)** 이식(Lee, Sik), 한유(Han, You), 대가의선비평(Criticisms on Daegauisun), 당송고문(the antique writings of Tang and Song Periods), 풍자의식(satiric sense), 주제문(topic sentences)